



갯스윌연합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정태기 목사를 초청해 치유 상담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

정태기 목사 초청 다시 찾기 세미나

갯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치유 상담의 초석을 놓았다. 평을 받는 치유상담연구원 대표 정태기 목사(한신대 명예교수)를 강사로 “다시 찾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희철 목사는 “금번 세미나는 이 민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쌓인 상처와 분노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보화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는 귀한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상처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열린 3일간의 세미나와 함께 28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한 정태기 목사는 “하나님은 나를 보물로 지으셨는데 우

리는 자꾸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확대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보화로 지으셨음을 확인하고 선언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내가 가진 보화, 가족 다시 찾기, 외로움의 치유자들의 제목으로 각각 열렸으며 29일(월) 저녁에 열린 집회에는 남가주에서 사역하는 한신대 동문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향을 수용할 수 있다’는 69%, ‘수용할 수 없다’는 21%, ‘잘 모르겠다’는 10%였다.

무신론자라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13%로, 앞서 갤럽이 조사한 성인 무신론자 비율(6%)의 배를 넘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으나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 중 1명이었다.

라이프웨이 학생사역 책임자 벤트루블루드는 “학생 사역자들은 앞으로 LGBT와 같은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가 창립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교회 될 것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 창립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기 원하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담임 마원철 목사)가 지난 28일 오후 4시에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 예배에는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담임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남가주장로성가단을 비롯한 축하객들이 분당을 가득 채웠다.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2015년 9월 박아모스 목사(ANC 온누리교회 총괄)가 성경공부를 이 지역에서 인도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6월 마원철 목사가 본격적으로 개척해 인근 태권도장에서 예배 드려 오다 2017년 9월에 현재의 미국 교회 테저트 스프링 교회로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하게 된 것이다.

마원철 목사는 “교회의 세워짐은 인간의 계산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됨을 고백한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테저트 스프링 교회와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마 목사는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가 서기까지 지원해 주고 기도해 주신 ANC 온누리교회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태형 목사는 “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가 교회의 공식 창립 이전에 이미 선교를 시작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날마나 퍼져나가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라”고 축복했다.

이날 창립 예배는 마원철 목사의 인도로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 조강왕 목사가 기도하고 남가주장로성가단이 특별 찬양을 했다. 김태형 목사가 사도행전 11장 19-3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소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LA새로워지는교회 담임 허번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테저트 스프링 교회의 마크 시더 담임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러진 임직식에서 노경숙, 오진경 씨가 권사로 임직했다. 박아모스 목사의 특별 임직기도 후 팜스프링스 필그림교회 담임인 박일서 목사의 축사하고 김명국 장로가 광고를 전했다. 모든 예배는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문의) 760-410-2829

美 청소년 성소수자, 성인의 3배

미국 청소년 중 성소수자(LGBT)의 비율이 성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23일 작년 7월 7~18일, 미국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LGBT·무신론자 해당 여부와 성적 지향 수용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3~18세 청소년의 12%는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닌 LGBT 중 하나 이상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갤럽에서 미국 성인의 4.1%가 LGBT라

고 발표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응답자들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성세대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응답자 가운데 37%는 성 정체성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들 부모 세대인 X세대(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28% 정도가 LGBT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여겼다.

응답자들은 본인이 이성애자라도 다른 성적 지향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 중 ‘다른 성적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Invitation

초청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04년 1월 23일 LA에서 설립된 기독일보가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문서선교의 사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후원자들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기독일보의 문서사역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30
장소 제이제이그랜드 호텔 2층 세미나룸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문의 T.(213)739-0403, (213)434-1170

*원활한 행사 진행과 식사 준비로 인해 예약하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조직 (III)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07년 9월 2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그 때 상황을 총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후 1912년 9월 2일 오전 9시에 평양 서문밖 신학교에서 회장 이늘서 씨, 박예현 씨의 미가 6장 8절의 강론과 기도로 개회하다. 회장이 총회 취지를 설명한 후에 서기가 회원 전서를 검사하고 조명(출석)하는데 경기·충청노회……전라노회……경상노회…… 함경노회……남평안노회, 평북노회, 황해노회……목사합 (외국 목사 44인, 조선 목사 52인) 96인과 장로 합 125인 총 합계 221인이니라.”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초대 총회장에는 언더우드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기수 김선주 목사가 선출되었다. 총회 개회 시 가장 흥미 있는 일은 일곱 노회를 상징하는 일곱 가지 다른 색깔의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만든 의사봉(고퇴)을 총회장에게 전달한 일이다.

총회의 창립으로 장로교회는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총회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의 장로교회와 중국 산동성노회, 일본 기독교회 그리고 만국장로교 연맹(현재 세계개혁교회연맹) 등에서 축전을 보내왔다. 또한 총회는 그 창립을 만국장로교회연맹과 각국 장로교회의 총회에 통고하였다. 이제 명실공히 한국의 장로교회는 세계 장로교회와 세계교회의 일원이 됐다.

비록 국가는 일제에 의해 독립을 빼앗겼지만 교회는 오히려 당당한 독립 기구로 세계 교회와 어깨를 같이 하는 경사를 맞았다. 총회는 200명 총대 중 선교사 숫자가 40명을 넘지 못하게 총회 법으로 못박아, 한국 교회의 독립을 강화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한국 목사, 장로가 다수여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하는 책무 또한 지워진 셈이 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고 나서 수행한 첫 번째 일은 해외 선교부의 조직이었다. 독노회가 설립된 당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파송했다. 그 후 국외의 서간도, 만주, 동경, 시베리아, 미국, 멕시코에까지 전도인들을

파송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디까지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위한 일이지, 이민족(異民族)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해외 선교는 아니다. 그러나 외국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곧 우리 교회의 존재 확인으로 국가가 없어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같이 취급 받던 시대에 한국의 정체성(identity)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1970년 미국의 저명한 교회사가 가이머 시카고대학교 교수인 마티(Martin Marty) 교수가 “국가의 정체성과 선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 말은 바로 일제 치하의 한국 교회 해외 선교 수행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총회는 선교지를 중국 산동성 내양현(萊陽縣)으로 확정하고 첫 선교사로 김영훈(金永勳), 사병순(史秉淳), 박태로(朴泰魯) 등 세 목사를 이듬해 파송키로 결정하였다.

한국 목사의 산동성 선교는 서양 선교사보다 무척 용이했는데, 그것은 한국 목사는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언어도 중국말과 발음이 비슷해 무척 쉽게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선교비는 전국 교회 감사주일 헌금을 전도국에 보내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고장으로 외국 선교사가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이었다. 우리 총회는 남이 성공한 지역에 가는 것보다 실적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그곳을 택하게 되었고, 중국 교회도 이곳을 천거했다. 해외 선교에 앞장섰던 선교부장 김선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중국 선교의 시작에 대해 피력하였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힘에 겨운 일

이다. 그러나 나라를 잃었을망정 국외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계 선교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의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복음 운동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의무인 동시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의 힘을 다할 뿐이다.”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에 대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두 나라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은 중국에 그 문명과 문화에 빛 진 바 [커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왜소하고 뒤떨어진 민족이라고 여겨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 주여 우리는 멸시받은 민족이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는 분이십니다. 아시아를 위하여 이 민족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제도와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았고, 배우기만 했던 한민족이 대국으로 섬겨만 오던 중국 사람들로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에 대해 「장로교회사전취집」에 “이는 조선교회가 선교 받은 지 28년 만에 안 된 때였다. 실로 세계에 유(類)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랴.”라 감격했다. 산동성 선교 첫 수세자는 장수명(Chang, Soo Myung)이란 70세 학자로, 그는 김영훈 목사가 그 지방관에게 보낸 한시(漢詩)를 읽고 감동하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산동 선교는 크게 성공하여, 평도(平度), 즉묵(即墨), 해양(海陽), 누하(樓霞) 등 5개 현으로 선교 구역이 확대되었다. 1932년에는 내양 남관(南關)교회에서 내양노회가 창립되어 중국 교회의 산동대회 산하 16개 노회 중 하나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후 교회가 35개 소, 교인이 1,716명으로 중국 선교사상 최대의 기록을 남겼다. <계속>



염규서 신임 단장(왼쪽)이 취임했다. 오른쪽은 샘 신 목사.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신년하례예배 신임 단장 염규서 목사 취임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신년하례예배와 함께 단장 이취임식을 22일 저녁 LA 한인타운 내 세계아카데미교회(담임 윤용복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임 단장 강평근 목사가 이임하고 염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가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샘 신 목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축사했다.

이날 만찬은 현진섭 목사(그루터기선교회 회장)가 제공했다.

한편, 이 찬양단은 지난 1월 28일(주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찬양했고 오는 2월 1일(목) 저녁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세계교육선교대회에서도 합창한다. 문의) 총무 김근수 목사 323-620-6400



전성진 목사가 코너스톤교회에서 특송하고 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시카고권사합창단 지휘자 전성진 목사 특송

시카고권사합창단 지휘자인 전성진 목사가 LA를 방문해 28일 주일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서병관 목사), 알바인 중앙장로교회(이기업 목사)에서 특송했다.

전성진 목사는 예상 고신 측의 존경받는 원로인 겸 전은상 목사의 장남이며, 한국 교회음악의 거장인 김두완 박사로부터 배운 제자다. 미국 중서부의 명문 노스웨스턴대학

교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아메리칸 콘서바토리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부학장을 역임했다. 미국 바하 소사이어티 멤버이며 시카고의 릴릭 오페라의 단원 등으로 주류 무대를 누볐으며 한국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이번 특송에서 전 목사는 영감어린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셀비 권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 (323) 578-7933



이 교회를 섬기는 신승훈 담임목사와 주요 직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했다.

본지 14주년 맞이해 기념예배

2월 5일, 후원이사 위촉식도 거행

본지 기독일보가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오는 2월 5일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후원이사 위촉식을 거행한다. LA 한인타운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좌석 제한과 식사 준비로 인해 미리 예약한 이들과 참석이 가능하다.

계획하심과 미주 한인교계의 역사적 요청 아래 창간된 이래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여러분의 후원이사님들을 모시게 됐다"고 전했다.

본지는 2004년 1월 23일 LA에서 창간됐으며 현재 온라인 신문과 주간 오프라인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이인규 사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장은 "본지는 명실공히 미주 한인교계의 대표 언론, 문서선교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면서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 독자님들과 후원자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사를 전했다.

성경적 상담, 기초 히브리어 강좌

월드미션대학교가 2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12주 코스로 '성경적 돌봄과 상담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의는 이 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맡으며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월요일 10주 코스로 '기초 성경 히브리어 강좌'를 연다. 남중성 교수가 평신도, 신학생 등 누구라도 성경을 원어로 읽기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 두 과정은 등록비가 각각 100달러이며 월드미션대학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이 학교는 2월 5일부터 매주

문의) 213-388-1000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드리내라”

19주년 맞이해 감사예배 및 임직식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창립 19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거행했다.

21일(주일)에 드린 예배에는 주님의영광교회가 속한 예정 국제총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부총회장인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

회가 “본이 되어 사심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총무인 김종옥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한편,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는 이 교단 총회장이다.

임직식에서는 장로 6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0명이 각각 임직했다.

1999년 1월 17일 창립된 이 교회는 이듬해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의 신승훈 목사가 담임으로 청빙되면서 10명 교인이 1년 만에 800명으로 성장하고 곧 성인 2천5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가 되며 무려 5년이나 이사하기도 했다.



남가주장로협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남가주장로협 신임회장에 김용식 장로 취임

제 43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에 김용식 장로가 취임했다.

김 장로는 지난 1월 28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장로협이 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늘 겸손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증경회장 하기언 장로가 기도했다. 곽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부름의 상(빌3:13-1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부회장 노수길 장로가 헌금기도했다.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이 특송을 부르고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 신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특별히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최광혁 대표회장이 한국 교회 장로들을 대표해 참석해 축사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총무 이형배 장로가 광고하고 축도는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가 했다. 마지막 식사기도는 증경회장 조순환 장로가 했다.



그랜드캐년을 방문한 한국 청소년들

박창성 목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비전여행

LA와 그랜드캐년에서 진행

세계장로선교회의 박창성 목사가 인도하는 청소년 비전여행이 해운대 소명교회 34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LA와 그랜드캐년 지역에서 진행됐다.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비전여행은 그랜드캐년 일대를 여행하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했으며, 세계적 기업과 명문대학, 유명 교회, 과학센터, 천문대, 박물관을 방문하면

서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심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다.

이 여행에 동행한 소명교회 정용호 부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됐다”며 “너무나 감사하고 유익한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1>

선교사 자녀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라 (2)

지난 주에 이어서 쓴다. 선교사의 최고의 성공 중 하나는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뒤를 이어 거룩한 선교사 계승을 하는 것일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 사람이다.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역을 하거나 또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이다. 필자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특히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 훌륭하게 자란 이들이 많은 것도 감사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K 선교사 부부는 두 아들이 있다. 사역을 떠나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들을 남겨두고 아프리카를 향했다.

필자는 그들을 환송하며 두 아이를 잘 돌보아야지 결심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세월 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솔직히 사역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

10년이 지나 선교사 부부가 작은 아들 대학 졸업을 맞아 잠시 방문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필자가 초대 받아 갔다. 그때 그 아들들의 지난 날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며 말하기 시작한 아들. 고등학교 입학도 졸업도 대학 진학도 자기 혼자 다 했다 한다. 고등학교 때는 미식축구부에 들어가 학교 팀을 우승권에 진입시킬 정도로 운동을 잘했다. 졸업할 무렵 자기의 육체적 한계를 깨닫고 운동을 포기할 때의 아픔, 진로를 상의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형제가 고민하던 때의 어려움, 생활을 스스로 고등학교부터 책임지며

파트타임 일하며 고된 일을 하며 지냈던 시절,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빈 자리 때문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지냈던 외로웠던 시절들, पार्ट타임하는 식당에서 일할 때 부모들과 같이 온 자기 또래의 아이들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찢던 아팠던 날들을 들으며 부모 선교사들도 울고, 필자도 함께 영영 소리내며 울었던 시간이 있었다.

우리 후방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과송받은 선교사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나 부득이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선교사들이 두고 간, 남겨진 자녀들엔 관심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의 선교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마음을 갖는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이탈한 자녀도 생기는 것이다. 다 우리 후방 교회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까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자식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영적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교차되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필자와 동료들이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모습

미드웨스트대학, 리더십 박사 학위 인준 ABHE로부터 Ph.D. 과정 인준 쾌거

미주리 주에 1986년 설립된 미드웨스트대학교(설립자 및 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2017년 12월 22일자로 철학박사(Ph.D.) 과정을 인준받았다.

미 연방정부 소속 학위 인준 기관인 ABHE는 리더십 관련 Ph.D. 학위 과정을 인준했으며 미드웨스트대학은 교육 리더십(두뇌개발과 영재교육 리더십), 전문 경영인을 위한 경영 리더십, 조직 및 사역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업은 영어 및 한국어로 가능하며, 현지에서 공부도 가능하고 온라인 과정과 집중 세미나 형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번에 Ph.D. 학위과정 인가 취득을 계기로 미드웨스트대학은 보다 수준높은 리더십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동문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 포럼을 구성해 국내 리더십 분야의 폭넓은 활동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꿈을 키우고 있다.

대학 측은 “현재 미국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리더십 Ph.D.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없었기에, 글로벌



미드웨스트대학의 전경

리더십 포럼(GLI, 국제대표 제임스 송 총장)을 통해서 지난 38여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학은 MBA 과정에 공공정책과 행정학,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투자 및 부동산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학위(M.A.) 과정을 통해 전문 영재교육 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항공 수요가 폭발적

으로 성장해감으로 인하여 국제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항공대학을 인준받음으로써,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항공운항 학사 학위와 미국 항공국에서 발행하는 FAA 국제 조종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세계 항공사 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이 대학은 항공대학, 경영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ESL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636-327-4645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행복지수를 높여라

시카고 근처에 노스웨스턴대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대학교와 더불어 중부의 명문을 이루는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미국인들 사이에는 상당한 명문 학교이지만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한인들에게는 몇 년 전 ‘슈퍼스타 K’의 준우승자 존 박의 출신 학교로 알려져 잠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년 보장 심사를 앞둔 수십 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니다. 심사 직후에 정년 보장을 얻은 교수들의 행복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실패한 교수들은 상당한 불행감과 실의에 빠졌습니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다시 행복 수준을 측정해보니 본인이 지니고 있던 기본적 행복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원상복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지수 복귀 현상은 대학 합격, 고시 합격, 승진 등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건, 얻지 못하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답니다. 복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에 당첨된 사람이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장에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행복지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밝고 명랑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를 높여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것입니다. 즉 감사와 기쁨의 정서를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긍정적 사고와 수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판 그리고 비난의 마음에는 행복이 꽃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 비난, 원망하지 말고 긍정, 수용, 칭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불행을 예측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기대하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며 힘겨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며 활기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삼일절 행사



- 목회자 세미나 : 3월 2일(금) 오전10:00
- 한인,히스패닉 연합성회 : 3월 3일(토) 오후 6:00
- 삼일절 기념연합예배 : 3월 4일(주일) 오후 4:30
- 사모위로회 : 3월 5일(월)~7일(수)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 신 목사

부활 소망의 신앙

사도행전 13:29-4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녀서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을 지라도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부활 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고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 69.7%, 거의 70%가 하늘나라도 없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믿음도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며,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이라 믿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의 소망을 가꾸고 이끌어 주는 곳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까지도 바뀌어 생명의 부활에 맞추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 될 곳은 가지 않게 되고, 하면 안 될 일을 결코 하지 않을 뿐,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의 향기로 온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형틀을 대신 날라 주는 것이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과 인연이 되어

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 있었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아내와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의 다 하늘나라 가는 부활 소망의 신앙 가문으로 대를 잇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일로 쓰임을 받았던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영적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셨다가 무덤에 사를 계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일러준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어로 ‘Jesus,’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 그 이름의 뜻은 ‘제가 자기 백성을 저지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낼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합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행13:39-41)

하박국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포와 죄악을 일삼고 못된 일을 행하고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애가 타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지은 죄를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중단시켜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 받게 해 주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된 행동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할 짓 못할 짓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행

13:42)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설교를 마치고 나가니까 무언가 듣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행 13:43)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6편 10절에 저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예언을 모함해도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인용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5-33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힘 있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 다녔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적 기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붙들어 쓰시는 성령님이나, 수제자 베드로를 사로잡아 붙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었다고 아주 힘주어 확실하게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들려 쓰임 받는 종들은 자기 생애를 부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과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은 지금도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지옥까지 가게 전도해서 생명의 부활로 꼭 하늘나라 가게 하도록 전도 대상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를 쓰고 부활 소망의 신앙을 애타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부활 소망의 신앙, 믿어지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나라 갈 확신과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투자해서 부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쓰셨던 성령, 사도 바울을 쓰셨던 성령, 지금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성령, 똑같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했으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들의 생활이 하늘나라로 직행하기만을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욕 때문에 죄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천국가고 영생얻는 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인생을 노래하는 즐거움도 줍니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을 만나십시오.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참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바쁜 길을 가다가 기차에 길이 막혔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차가 지나가고나면 길이 다시 열립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다시 달려갈 수 있다는 기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즐겁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기쁨을 빼가지 않는 비밀이 기독교신앙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 기다리는 동안 기쁨을 주시는 분, 다시 길이 열릴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화장로교회 담임 이 동 진 목사
 www.sung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LA 영혼의 샘 Holy Spirit Conference 성령 컨퍼런스

Spiritual Revolution 영성혁명을 통해 Ways of Zion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Blessing of Prosperity 형통의 축복을 받자!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일정 12차 | 2018/1/16/화 - 2/3/토 (주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시간 - 저녁 7시 30분

문의전화 424 375 0725 / 213 245 6616

집회장소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YouTube 유튜브에서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보세요!

백송 다니엘 기도회 하루 세 번

새벽 5:30 | 오전 11:00 | 저녁 7:30

제 3회 | 2018/5/21/월 - 6/10/주일

집회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보령 백송 수양관**



강사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서울신학대학원 M.Div 졸업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인천 가족치유
평절대 부흥성회 오전 11:00 | 저녁 7:30
2018. 2. 12 (월) 저녁 - 2018. 2. 16 (목)

인천 영혼의 샘 Holy Spirit Conference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저녁 7:30
53차 | 2018. 2. 19 (월) 저녁 - 2018. 2. 24 (토) 오전

• **변화**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 **치유**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 **기적**

찬양, 설교 등의 훈련과
방언, 진동,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구사역,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방향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 샘
지부 안내

해외지부

•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31번길 20

• 보령 백송 수양관 | 010 2839 9501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애틀랜타교협, 회원가입 요건 완화

2018 정기 사업총회 열려



교협 2018 정기 사업총회가 열렸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김성구 목사) '2018 정기 사업총회'가 23일(화) 오전 11시 새날장로교회(유근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교협은 올해 1월 신년초찬기도회 및 사업총회를 시작으로 4월 부활절연합예배, 유소년축구대회 후원, 7월 목회자 단기선교, 10월 복음화대회 및 한인청소년대회, 11월 정기총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교협은 앞으로 회원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 선임보고에서는 회장 김성구 목사와 부회장 이재선 목사, 평신도부회장 심우철 장로와 함께 할 임원으로 총무 유근준 목사, 부총무 권석균 목사, 서기 백성봉 목사, 부서기 유예녹 목사, 회계 이순희 장로, 감사 임현수 목사와 박화실 집사가 보고됐다.

이사회는 이사장 정윤영 목사, 서기 송상철 목사 외 김영환 목사, 류도형 목사, 서삼정 목사, 신용철 목사, 장석민 목사, 최선준 목사, 최병호 목사, 황영호 목사, 임연수 목사, 한병철 목사가 이사로 수고하게 된다.

분과위원장으로는 예배 신윤일 목사, 기도 유희동 목사, 선교전도 이문규 목사, 사회복지 최선준 목사, 이단대책 박광수 목사, 진교 김하나 목사, 신학 최봉수 목사, 재정 김순영 장로, 청소년 정정희 목사, 음악 박재형 집사, 교육 김영준 목사, 여성복지 지수예 사모, 체육선교 천경태 집사, 법률자문 진명선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수영 기자



서북미 한인침례교회 협의회 2018년 신년하례회 모습

서북미 한인침례교회 신년하례회

감사와 축복 전하는 목회자 사명 감당하자!

서북미 한인침례교회 협의회는 지난 22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2018년 신년하례회를 갖고 서북미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했다.

서북미 지역 약 45개의 한인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올해 신년하례회에서는 이경철 목사의 기도에 이어 서북미 남침례교 디렉터인 랜디 아담스(Randy Adams) 목사가 "당신의 사역을 축복하라 (Bless you, for what you done, 사무엘하 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담스 목사는 "사역자들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축복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아담스 목사는 또 "교회는 더욱 강한 연합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북미 한인침례교회 협의회는 이날 새롭게 가입한 포틀랜드 리조이스교회 김일환 목사와 2017년 회장으로 수고한 이모세 목사에게 감사와 함께 헌금을 전달했다.

폴 원 기자



송정미 성가사와 함께하는 신년맞이 행복찬양예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연합장로교회, 송정미 초청 찬양예배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임시당회장 심우진 목사)가 '송정미 성가사와 함께하는 신년맞이 행복찬양예배'를 지난 21일(주일) 개최했다.

이날 송정미 성가사는 토크쇼 형식의 진행으로 '오직 주만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의 기도', '축복송', '순종' 등 한 곡 한 곡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곡과 관련된 신앙적 에피소드와 여러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송 성가사는 "교회 사역자, 장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라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찬양했다.

윤수영 기자

"하나님 나의 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모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어로 삼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가 보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송 성가사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이성균 목사 작사 작곡 '나의 기도'라는 곡은 평생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곡이다.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고백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축복송'이었다. 송 성가사는 참석한 이들의 가슴에 손을 얹게 하고 참석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마음으로 '축복송'을 불렀다.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양하며, 이단기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양을 순증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행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김승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모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침례부 오후 1:30 오영미어 화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달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침례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모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8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팔공) 오전 5:30
리조이스(캘리포니아)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믿,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운교회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인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김성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침례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김준식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해 오후 7:30 새벽예배(토요일) 오전 6: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메일OT 불-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주일학교 금요일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1: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45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vc.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주일3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금) AWANA 오후 6:00(금) Youth Friday Services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진리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818)845-1683/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1부)오전9:30 EM예배 (2부)오전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벨리채플 Valley Chapel MP제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a St., Northridge, CA 91325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5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왼쪽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채의승 장로와 김진표 의원 등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50주년 역대 최대 규모 예상돼 오는 3월 8일 개최, 소강석 목사 설교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8일 아침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설교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전한다. 소 목사는 2년 전에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했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교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와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승 장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양측 관계자들이 30일 아침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8일 국가조찬기도회의 의의와 개요 등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이번에 열릴 국가조찬기도회가 50회를 맞았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도 역대 가장 큰 5천여명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 해외 정·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한다. 그래서 장소도 기도회 규모를 감안해 킨텍스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울 코엑스에서 했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비핵화로 인한 평가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2년 만에 다시 소강석 목사를 설교자로 정한 데 대해서는, 그가 개교회 목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국내 대표적 목회자라는 점이 작용

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인 주대준 장로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흠집이 없고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설교자로 정하는 게 주요 방향이었다"며 "소강석 목사님은 그 개인도 그렇지만 새에덴교회 역시 그런 방향에 부합했다. 또 50주년을 맞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젊은 목회자로 하자는 뜻에서 소강석 목사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도회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주최 측은 "영적 회개와 사회적 화해, 국가적 통일, 역사적 미래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교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1968년 처음 시작됐다. 기도회의 정신은 지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대표회장 대행으로 하지는 안에 총대들이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대행에 김창수 목사 지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30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날인 29일 법원에서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선거 없이 치러졌다.

정기총회 전 설교한 증경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한국교회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기총이 뭉치려면 대표회장을 잘 뽑아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으면 잘 선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될 수 있다. 하나님은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뽑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내년 30주년을 앞둔 한기총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연합단체의 통합이다. 다른 데서 볼 때는 통합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복귀'라며 "한기총이 된 한교연과 통합의 여지를 두고 다음 달부터라도 '한 지붕 밑 두 살림'을 하더라도 일단 합치자는 교감이 오가고 진척이 되고 있었다. 한교총도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합동 측은 올 중순 내에 한기총으로 복귀하도록 대화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엄 목사는 "대내외적으로 한기총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합쳐지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합쳐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동성애나 동성혼, 차별금지법, 성평등도 자구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은 누구의 잘잘못을 들추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자"며 "한기총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변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대 368명 중 241명이 참석해 총회가 개최돼 2017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안건 및 회부처리가 진행됐다. 선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치러지지 않았다. 기타 안건으로는 또 다시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총대들은 "이유야 어찌 됐든 선거 무산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선관위원들이 사과하라"는 요구가 빚발쳤다. 그러나 최성규 목사는 "유인물 속에 마지막 어제 회의를 빼고는 다 들어있다. 중임은 안 된다고 한 유권해석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회의록 속에 사과도 있고 사퇴 사실도 기록돼 있다"는 말로 현장 사과를 거부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장 보수합동)를 대표회장 대행으로 지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시의장이 된 김창수 대행은 "한기총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여러 총대들이 앞으로 잘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의는 곧바로 정회가 선포됐으며,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측이 제기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사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은 1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존 파이프 목사

“신학교 女 교수는 비성경적” 논란

존 파이프 목사 발언에 찬반 팽팽

존 파이프 목사가 최근 “여성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파이프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God.org) 웹사이트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청취자로부터 여성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답전 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서는 겸손하고, 영적이며, 성경적인 자격을 갖춘 남성이 교회를 이끌도록 가르치고 있다”면서 “여성 목회자를 두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의 훈련을 위한 공적 교육과 멘토 역할의 자리에 여성을 두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작가와 찬양 인도자로 활동 중인 카이틀린 커티스는 자신의 SNS에 “어린 시절 내가 제일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커티스는 “남성 중심의 신학에 여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기 위해 노력하자”라면서 “개인의 신앙에 가장 많이 이바지한 여성 교회 리더를 꼽아달라”고 전했다. 이에 남성들은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을 남기며 커티스의 글에 반응하고 있다.

또, 한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성 대표는 “사사 시대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어떠한가? 누가복음에 나온 안나 선지자도 있다. 남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브리스길라는 어떤가?”라고 말했다.

반면, 베들레헴 신학교 조 리니 교수를 비롯해 일부 사람들은 존 파이프 목사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리니 교수는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최고의 책임자는 멘토 역할과 교수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존 파이프 목사의 발언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콥트 기독교인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문신. ©오픈도어즈

박해자들 앞에서 “난 기독교인”

이집트의 한 콥트 기독교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다시 말했다.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엘 아리시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3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들은 그에게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징표로 오른쪽 손목에 작은 십자가 모양의 검은색 문신을 새겨넣는다. 많은 교회들이 입구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고 기독교인만 들여보내기 때문에, 이는 신분증의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들은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확인한 후 그를 끌고 가 폭행한 뒤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숨진 이 기독교인의 형제는 “그는 정말 선하고 친절했다. 그는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성을 맺고 있었고,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박해감시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그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내 전화를 받더니, 자신들이 시나이주에 속해 있으며,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집트 엘 아리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연쇄적으로 죽임을 당하자, 많은 콥트 기독교인 가정들이 이스말리아와 수에즈로 떠났다. 2017년 3월에는 이 도시에 살던 160개 콥트 기독교인 가정 중 70% 이상이 떠났다. 강혜진 기자

켄터키 주지사 “총기난사는 문화적 문제”

맷 베빈 켄터키 주지사가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들을 ‘문화적 문제’로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베빈 주지사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있고, 살해에 무감각해지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공감도 사라지고 있다. 이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축복할 수 없다. TV나 영화, 음악 가사에 등장하는 죽음을 축복할 수 없다. 도덕적인 감각이나 권위있는 감각들은 모두 제거돼 있고, 우리는 총기난사와 같은 일은 벌

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오전 마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14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15세의 여학생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15세 남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베빈 주지사는 30일까지 일주일 간 조기를 계양하고, 주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도록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마음이 찢어지는 애도의 시기에 우리가 사랑과 연대감 속에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평양연대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죽 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연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찬양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C대학생연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예)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심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재지되고 재지되지 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운우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재지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민경업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EM*영어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교회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562) 691-0698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i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불사용)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계거
 6. 음이온
-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 클래식 스타일 컵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림감 또한 뛰어납니다.
-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 더블 카트리지가
- * 클래식 스타일 컵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물병 선정

Jacob Choi 최 제이콥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ANC 온누리교회 K-1학년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청빙 (Seeking Kinder-1st Pastor)

■ 자격조건 (Qualifications)

- 인가된 신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 (Graduated from (or attending) an accredited seminary)
-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 동 사역에 경험이 있는 분 (Experienced in the children ministry)
- 합법적으로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legal resident in California)

■ 신청서류 (Applications)

- 이력서 (Resume)
- 자기소개서 및 사역철학 (Personal introduction & ministry philosophy)
- 추천서(1부) (Letter of recommendation)

■ 서류 보내실 곳 (Send documents to)

- Email : amos.park@anconnuri.com
- Atten : HR Team (Rev. Amos Park)

■ All Nations Church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834.7000 (ext. 125) / www.anconnuri.com

꿈은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창 1:22).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창 1:28).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 꿈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할 때 먼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은 힘든 현실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꿈의 언어는 상상의 언어입니다. 꿈을 표현한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상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꿈의 언어를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새로운 땅을 얻게 될 것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장차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창 12:1-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꿈을 꾸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그를 향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창 37:19)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가 꿈 통해 축복하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꿈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새로운 미래에 도전케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그의 꿈을 성취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모든 만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디발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술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은 늘 학습합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보디

발의 집의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에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그의 준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가 성취해야 할 꿈이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의 쓴 잔을 마시면서 성장합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거룩해집니다.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노력만 한다고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할 때 꿈이 성취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은 꿈꾸는 사람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목표에 적합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야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가정을 세우는 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선교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꿈입니다.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학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복이 늘 따라다니게 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2)

해마다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이 되면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국내외 단기선교 혹은 아웃리치를 다녀온다. 또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선교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제선 선교의 개념도 변화되어,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를 세우자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한국교회의 선교 집중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가 지역과 영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겠노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열정만 활활 타오를 뿐, 실제적인 경험과 역량은 함량 미달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영역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대책 없는 헌신은 더 심각하다. 그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뿐 '영역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영역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해당 영역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마치 목회자나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영역 선교 헌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안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목회자들이나 부모, 주변의 어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싶다면, 차라리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라고 권한다(시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그런 인식은 늘 변함없는 듯하다). 모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영역 선교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에는 헌신한 당사자 혼자 뛰어야 한다. 이러한 고독한 헌신의 과정을 살아내려면, 자기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열심과 열정을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짜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바로 영역 선교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신자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당연한데, 뭐가 문제야?"라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물론 열심과 열정이 문제라는 얘기는 어디가 이상하게 들린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타오르는 가슴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뜨거운 열정 없이 어떻게 거스르고 어그러진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열정 그 자체가 아니다. 열정만 갖고서 전문분야와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대책 없음'이 문제다. 열정은 중요하다.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정은 전문 역량이 아니다. 영역 선교를 하려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이 없으면 영역 선교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금세 비전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어진 현실에 불만을 터뜨리며, 자신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나는 지금 역량이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열정 없이 역량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뜨거운 열정을 연료삼아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을 감당할 만한 전문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열정과 역량의 균

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마치 명문대에 몇 명을 합격시키느냐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는 무관심한 입시학원처럼, 헌신자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 크게는 세계 복음화와 영역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에 서부터 작게는 지역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준비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일을 맡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뛰어난 학력과 오랜 임상 경험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을 좇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전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영성이나 열정, 은사가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에게 이 단어가 불편하다면 이렇게 바꿔도 좋다. '거룩한' 책임감! 이는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더 잘하고 싶은, (수동적 태도의 기독교적 표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대신 자신이 감당할 몫을 찾아 적극적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책임감이다.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과 인생에서 더 나아가고 성장하게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진보해야 한다는 책임감,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는 책임감이 없는 교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교회에서 지위 준 영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delivery) 것밖에는 하지 못한다. 이런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에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5월 \$290

- 모든 배급 포함 (음식/음료/주류/서비스)
- 기항지 선박관광 및 일일 탑승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타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교회법 전통 모른 채 서양 법제사 논할 수 없다

〈라틴어 수업〉 저자의 ‘교회법과 유럽사’ 이야기

“서양 법제사를 통해 종교와 법이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가를 돌이켜 보면, 법이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게 아니라 거꾸로 법과 정치권력이 종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42-43쪽).”

저자의 언급처럼, 종교와 법의 관계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계기로 수립된 ‘기독교 왕국’ 이후 시민생활과 사회생활 및 정치에 있어 종교적 이상과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정교분리’ 개념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양 사회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법(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한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미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계속해서 제정이 시도되는 차별금지법, 지자체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기독교 교리의 자유로운 발표와 전파에 제약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서양에서 이미 시행된 내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미션스쿨)의 건립 목적 구현도 애매모호한 이유로 법률을 제정해 막고 있다.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물론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이 책은 ‘법을 통해 읽는 서양 역사’로, 로마법이 기독교 세계에 끼친 기여, 그리고 교회법이 서양의 법률과 사회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도 기원 면에서 로마법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교회의 소송절차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스도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 문화를 말할 수 없듯이, 교회법의 전통을 모르고서는 서양 법제사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때 교회법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156쪽).”

책에 따르면 ‘교회법’이라는 단어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Concilium Nicaenum Primum)에서 ‘규율(kanones)’과 ‘법률(nomoi)’을 구분한 데서 유래한다. 이후 공의회들은 신앙 규범(canones fidei), 도덕 규범(canones morum), 규율 규범(canones disciplinares)을 구분했는데, 이 중 규율 규범은 강제적 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
한동일 | 글항아리
424쪽

무라기보다 주로 권고적 성격을 띠었고 이를 ‘노모카논’이라 불렀다.

‘노모카논’은 법을 뜻하는 ‘노모스(nomos)’와 규율을 뜻하는 ‘카논(canon)’의 합성어로 후기 비잔틴 시대에 일반시민법과 교회법 규범의 수집 방법으로 나타났고, 교회법이라는 말은 이 ‘카논’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영어는 교회법을 ‘캐논 로(canon law)’라 부르고, ‘노모카논’은 교회와 관련된 일반시민법과 교회법으로 구성된 교회법 모음이었다. 동방 교회는 초기부터 유지된 이 전통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교회법을 ‘노모카논’이라 불렀고, 이후 18세기까지 효력을 갖는다. 서방 교회에서는 ‘교회법’이라는 용어가 8세기경부터 사용됐지만 정식 학문으로 정착하는 것은 1140년 ‘그라치아노 법령집’ 출간 이후다.

교회는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와 이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며 인권과 박애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법조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로마의 법률 개념을 통해 생각했고, 교회의 고유 규율에 대해서조차 로마의 법률과 행정 용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법이 독립 학문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도 로마법 연구의 쇠퇴와 관련이 있었다.

원제목이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의 조화인 ‘그라치아노 법령집’은 문제를 제기한 다음 교회법 자료의 원문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해

설했는데, 이러한 학문 방법은 이제 막 태동한 로마법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 방법으로 볼로냐에서 읽히고 해석된다. 이후 1234년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에서는 이자 수령 금지와 폭리 행위 금지가 유래했고, 여기서 율피아누스가 말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ervanda sunt)’는 국제조약법과 계약법의 대원칙이 된다.

또 ‘보나파시오 8세 법령집’ 마지막 권 속 ‘법의 원칙(Regulae iuris)’ 88개항은 훗날 유럽의 보통법으로 발전한다. 소송 절차(ordines iudicarii) 유형 발전의 절정은 굴리엘모 두란테(Guglielmo Durante, 1237-1296)의 〈재판의 거울(Speculum iudiciale)〉에서 나타난다. 이외에 책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부터 ‘종교인 과세’까지, 노예제 폐지와 일부일처제, 소송절차법 등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을 상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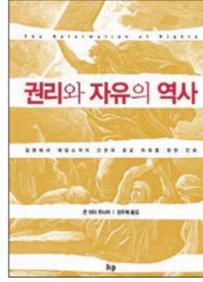
한편 중세 교황들의 법령집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주교좌 성당 앞마당에서 가장 먼저 불태운 것이 교회법 관련 서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프로테스탄트 대학에서는 교회법학이 사라졌고,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광범위한 영향도 잊혔다.

저자는 “나아가 이 일은 단순히 개신교 대학에서 교회법학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개신교단 내에서 교회법이라는 존재가 자취를 감추도록 했다”며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일어나는 수많은 법률적 어려움은 이때 태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진 못했지만, 한국교회 내 각종 법률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그 배경이 되는 ‘교회법학’의 부재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인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자 지난해 최고 베스트셀러 〈라틴어 수업〉을 쓴 한동일 신부다. 개신교에도 인문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이런 대중 저자들이 절실하다.

이대웅 기자

칼뱅주의자들은 인권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함께 읽을만한 책〉 권리와 자유의 역사



권리와 자유의 역사
존 위터 주니어 | 정두메 역
IVP | 592쪽

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인권 문화와 헌법 구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예모리대 법과종교연구센터 소장으로서 ‘법 역사와 결혼, 인권, 종교 자유’ 분야의 최고 학자로 불리는 저자는 이 책에서 장 칼뱅이 쓴 글들을 통해 이런 권리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들을 뽑아내고, 그의 후예들이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함참 뒤 미국 등에서 16-18세기 중 정치적 언약과 기본권에 대한 주장들을 발전시켜 온 과정들을 짚는다.

이를 통해 인권의 역사가 18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계몽주의의 산물이라는 통념에 도전한다. 이 책에서도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 나오는 고대 로마법과 중세 캐논법, 그라티아누스 등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개신교가 서구의 권리 논의에 기여한 공로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서로에 대해, 그 구성원들에 대해 어떠한 성질과 권한을 갖는지 재정립하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조사한 점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이 권리를 십계명 및 그 외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들에 근거하게 한 점 등을 꼽는다.

논의를 종합하면서 저자는 “오늘날 인권계는 인권을 배양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절망’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동시에 쏟아진 권리혁명에 기독교와 기타 종교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산파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처음에 종교단체와 그들의 종교권리에 관심을 보였던 권리혁명 지도자들이 점점 더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권리들이 그 근원을 잃게 되고 인권제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며 국가에 인권 보장의 과장된 역할을 주는 왜곡현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 세기에 직면한 도전은 이런 종교 공동체들을 산파에서 ‘어머니’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즉 다른 곳에서 생성된 권리 규범들이 탄생하는 것을 돕는 대리인 역할이 아니라, 인권의 규범과 실천들에 대해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연합들의 역할로 변화해 세속적 법 체계의 모델이 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기독일보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해외이, 괌, 알리스크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송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제38대 회장 이·취임식 및 설날 대잔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남가주 호남 향우회를 위해 큰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해 주신 향우님들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남가주 호남 향우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38대 회장 이·취임식과 설날 대잔치를 아래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오며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큰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18년 2월 17일(토) 오후 5시
- 장소 :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Tel 213-383-0000
 행사 관계로 필히 예약바랍니다.

* 연락처
 회장 : 백지영 Esther Baek 323-708-9191
 이사장 : 잔 킴 John Kim
 사무총장 : 이인규 John Lee
 호남향우회 Email: lahonam@gmail.com

* 초청인
 취임 회장 : 백지영
 이임회장 : 조시영
 취임 이사장 : 잔 킴
 남가주 호남향우회

남가주 호남 향우회
 Honam Friendship Foudation of So. California
 www.honam.org



눈물교회의 현판



이 교회는 지붕 모양도 눈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0)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벧바게’(무화과 나무의 집, A Fig Tree House)에서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말라기, 학개 선지자가 누워 있는 무덤 옆을 지나 감람산 비탈길로 내려오시면서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군중들의 환호는 길가에 걸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절정에 이른다. 이제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대로 메시아가 감람산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메시아가 이루어낼 신정국가의 도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잔혹한 통치를 자행했던 로마 정부는 무너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의 땅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마다의 푸른 꿈들이 감람산 중턱 성전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여지없이 깨어진다.

5:7) 셋째, 감람산 중턱에서의 울음(눅19:41-44)이다. 3번의 울음 중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곳의 울음이 가장 크고 가장 격렬했다고 한다.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한다. 왜 이처럼 행복한 시간에 축복된 환영의 길을 속에서 주님은 우셨는가? 함께 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너무 의외의 장면에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답은 바로 주어졌다. 눈물을 그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장면에서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다.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다. 오늘날에도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많은 인류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세상문화도 평화에 관한 일보다는 쾌락에 관한 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시고 계신다. 인류가 복음 밖에서 평화에 관

한 일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교회에서 일반인들의 무덤과 고대 선지자들의 무덤 사이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거대한 정통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게 된다. 바로 일명 ‘도미누스 플레비트’(Dominus Flevit)라고 부르는 눈물교회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의미이다. 교회 건물 지붕 모서리 네 군데에 눈물을 담았다는 향아리가 있고 지붕의 모습도 눈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교회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의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땅자가 먹었다는 쥐엄 열매 나무이다. 쥐엄 열매가 열리는 때에 가면 그 열매를 주워 올 수도 있다. 주후 1-3세기에 이르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수련장이었던 감람산에는 초대교회의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납골당이다. 무덤들에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쓰여진 비문에서 초대교회의 역사의 향기를 맡는다. 교회로 가는 길에 자스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박하나무들이 총총히 심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눈물을 나타내는 교회

교회의 지붕은 독특하게 눈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지붕 위의 네 기둥에는 눈물 향아리들이 놓여 있다.

뒤쪽으로는 5세기 교회 흔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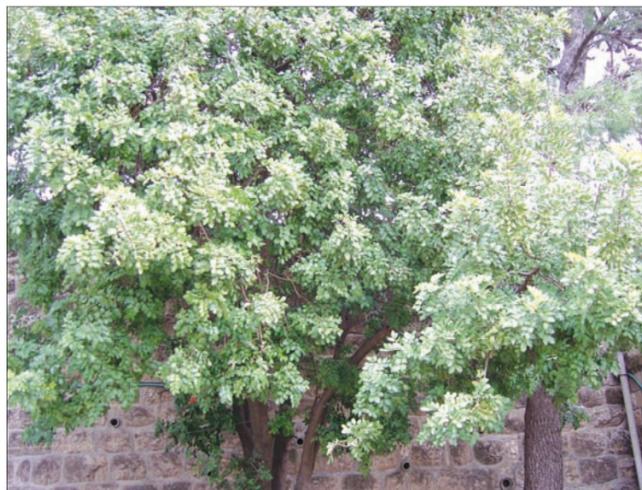
있고 지붕은 성경 사건을 조각조각 해 놓았다. 전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조각을 중심으로 제단이 있고 제단 뒤편 유리창은 가시 면류관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 황금사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 주께서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 70만 시민 대다수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독교 순례자들도 평화(복음)에 관한 일보다는 황금사원에 더 눈이 간다. 지금 구 예루살렘의 3만 영혼과 신 예루살렘의 67만 영혼을 누가 구원할까? 이스라엘 유대인 570만 명과 아랍인 500만 명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복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욱 집중되어있음을 우리는 눈물교회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계속)

눈물을 담은 향아리들

예수님이 갑자기 통곡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눅19:41-44)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보낸 평화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일어날 비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픔으로 주께서 심하게 우셨다.



교회 안에 있는 쥐엄나무. 돌아온 탕자를 떠올리게 된다.



교회에 있는 납골당의 모습

목사 고시 시행 공고

주후 2018년도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응시 자격**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예정)한 자, 또는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예정)자
- 2.고시 과목**
①신약 ②구약 ③교회사 ④교리,신조 ⑤기독교 일반상식
- 3.시험 일시:** 2018년 3월 19일 오전 8:00 - 오후 5:00
- 4.시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5.제출 서류**
①이력서, ②신학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③M. Div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신앙 간증문(2-3매), ⑤증명사진 2매
- 6.비용:**(총합계 \$600)
①고시료: \$400 | ②총회 회원가입비: \$100
③지역회 회원가입비: \$100
- 7.접수마감일자:** 2018년 3월6일 (당일 우체국 소인인정)
- 8.제출처:**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Check Payable to: **RPCA** (*서류와 check를 동봉할것*)
- 9.목사안수식:** 합격자에 한해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LA 지역회
*기타문의: 총무-엘리아 김 목사(213-272-603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RPCA)고시 위원회
위원장 : 김인철 목사 | 총무 : 엘리아 김 목사

RPCA 총회 회원 모집

개혁장로교회 한미연합 총회는
한국지역회와 서부지역회, 남부 지역회, L.A 지역회로
구성된 교단입니다.

**RPCA: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교단의 특징:

- 1) 시무년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 2) 선교 중심적 입니다.
- 3)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선교사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4) 기존 교단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친목중심형 교단입니다.

※ 타 교단에서년령 제한에 적용되시는 목회자나 교회를
교단 가입에 환영합니다.

※ 교단 가입 서류를 접수하시고,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입인준이 됩니다.

가입 문의 전화 : 213-272-6031 (총무:엘리아 김 목사)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나는 ‘유신 진화론자’ 아닌 확고한 창조론자”

[인터뷰] ‘과신대’ 이끄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마치 선언과도 같은 이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중 단 한 장, 31절 만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 우주와 지구, 특히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따져 물어 오는 이들이 있다. 주로 비기독교인들이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기원마저 설명할 수 있다는 그들은 과연 신(神)이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문제는 후자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맞서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개 회피하는 쪽에 가까웠다. 기독교인이나 구원만만큼 정립된 ‘창조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 기독교는 그 신앙을 변증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를 만났다.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다. 그는 과학과 무신론의 도전에 응전하고 균형 있는 창조신앙을 세우기 위한 단체인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를 이끌고 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진화, 진화 이론, 진화주의

진화론을 과학으로 여겨, 이를 근거로 창조론, 나아가 신까지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진화론은 정말 과학인가?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다. 흔히 진화론이라는 말로 단순히 표현하지만, 이 말 안에는 진화와 진화 이론, 그리고 진화주의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 뒤섞여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데 1차적인 문제가 있다.

진화라는 건 일종의 경험적 데이터다. 화석 등을 통해 관찰해 보니

각 종(種)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왔다는, 일종의 발견이다. 진화 이론은 그런 진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다. ‘자연선택’이라든지 ‘유전자 변이’ 같은 용어들이 바로 진화 이론을 정립하는 데 쓰였다.

문제는 진화주의다.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철학이나 사조에 가깝다. 무신론이 바로 진화주의에 해당한다. 즉, 생물이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고, 과학이 그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했으니 ‘신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다. 왜 진화와 진화 이론이 무신론만을 지지하는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과학적 발견과 이론이 반대로 유신론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 진화와 진화 이론은 과학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말했다시피 진화는 그저 하나의 발견으로, 과학이나 아니냐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령 약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영장류의 화석은 다른 것들보다 후대에 나온다. 그러므로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진화 이론인데,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천문학자로서 구체적인 진화 기제는 잘 알지 못하고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밝혀내는 건 생물학자들이 몫이다. 다만, 같은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그들이 연구해 광범하게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진화 이론을 과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주의가 아닌 진화나 진화 이론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창조론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진화를 창조자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창조하면 마치 마술처럼 무언가를 ‘뿜’ 하고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이미지만 떠올린다. 이런 기독교인이나 아니



우종학 교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 과학자이다. 그는 진화주의를 거부하지만 진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창조과학자들과는 다르다. 흔히 그는 유신 진화론자라 불리고 있다.

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높은 산에 올라 자신을 압도하는 절경 앞에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눈앞에 펼쳐진 기암괴석과 구비치는 계곡은 풍화와 침식의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누구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인류의 기원 문제에 있어 진화와 진화 이론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과학,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나아가 신앙과 과학은 대척점에 있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의 과학혁명은 종교개혁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과학적으로 더 앞서 있었던 건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동양과 이슬람권 국가들이었지만 근대과학의 성립에 있어서는 유럽이 뒤지고 말았다. 아마 유럽인들은 그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즉

그 신을 합리적이라고 믿었고, 이것을 자연 탐구의 철학적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 실제 근대과학을 일으킨 수많은 과학자들 중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 동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호기심이였다.

그런데 종교와 과학을 대척점에 두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 이른바 ‘종교 VS 과학’이라는 구도가 상업적 의도 등과 맞물리며 대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또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렇게 물고 간 측면도 있다.

나는 종교와 과학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기독교 창조론이 진화와 진화 이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라면 자연은 일반계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런 일반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과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듯이, 과학을 통해 대자연의 창조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정확한 통계야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다. 아마 무신론자보다, 신과 같은 초과학 초경험의 세계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不可知論)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내 추측이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 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질문은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따지고 보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물론 나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도 많다.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창조론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초등학교 댄 밤하늘을 보며 별 자리를 익히고, 신문이나 잡지에 우주탐사선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 그걸 오려 스크랩하는 걸 좋아할 정도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이토록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려면 그보다 크신 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과 과학이 결코 모순이 아니었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6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2016년 5월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 제1회 포럼 '우주 창조에 관한 과학자와 신학자의 대답'이 서울대에서 열렸다. 팍찬 강의실이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방증하는 듯하다.

그런 내가 기독교 창조론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한 뒤 석사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내 주변에서 '천문학은 우주의 나이가 대략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기독교인인 내가 그런 학문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이다. '아니, 140억년이라는 우주의 나이와 내 신앙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나로서는 이런 생소한 질문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창조론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 '아, 그들은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대략 6천 년에서 1만년 사이로 보는구나!' 이때부터 창조론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됐던 것 같다. 과연 내가 공부하는 천문학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인지, 내게 물어오는 이들에게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위 '창조과학'을 말하는 것인가?

맞다. 지구의 나이가 대략 6천년에서 1만년 사이라는 건 그들의 핵심적 주장 가운데 하나다. 이른바 '젊은 지구론'이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계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물론 그들은 과학을 무기로 삼은 무신론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의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방법이 틀렸다고 본다. 창조과학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그 이름이 '과학적 창조론'이었다. 즉, 과학으로 신의 존재와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온 세상 만물

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과학의 범주로 끌어내리는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당위성이 과학의 힘을 빌려야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는 어김없이 무신론자들의 먹잇감이 된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을 때, 만약 시간이 흘러 그런 발견과 이론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하나님의 자리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에 대해 선불리 과학을 배제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 능력을 앞세우면, 훗날 과학이 그와 같은 현상을 증명해 버릴 때도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때문에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신학자들은 이처럼 자연, 즉 일반계에서 출발하는 신 존재 입증은 위험하다고 일찍이 경고했었다. 오히려 그 반대, 그러니까 특별계에서 근거해 자연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신 진화론자? 유신이든 무신이든..."

-많은 이들이 교수님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부른다. 동의하나?

사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 주장이 이거다라고 잘라 말하거나 그렇게 책에 쓴 적이 없다. 다만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견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과학계가 말하는 진화 이론도 하나의 창조 방법으

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정도였다. 아마 이 때문에 나를 '유신 진화론자'라고 부르는 듯하다.

하지만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유신이든 무신이든, 그 뒤에 '진화론자'라는 표현이 붙는 이상 그 사람은 '진화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유신 진화론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의 이면에는 '저 사람은 사실 진화주의자인데, 그저 유신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썼을 뿐'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나는 진화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확고한 창조론자다.

-진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지금도 진화의 과정에 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우종학 교수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의 신앙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조에 대한 불신은 결국 신앙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목회자에게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때 내가 '진화 할 것'이라고 했더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 하지만 한 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인간이 갖는 특별함이 과연 생물학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손가락이 다섯 개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단순히 생물학적 인간의 몸이 진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 같은 유럽의 나라들에 있는 왕궁에 가보면, 과거 왕이 누웠던 침대가 지금과 달리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자도 그렇고 갑옷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몸이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한다. 사실 생물학적 구조로만 보면 인간은 그리 완벽하지 않다. 예컨대 하나의 숨구멍으로 기관지와 식도가 같이 있다는 건, 특히 어린이의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건 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도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존 스토트 역시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이 창조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신학자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를 이끌고 있다. 왜 시작하게 됐나?

과학주의 시대, 무신론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다. 그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들에게 지구의 나이가 6천년에서 1만년 정도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이 단지 기독교의 창조론만을 불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 전체에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과신대를 시작하게 됐다. 과학과 무신론의 도전 앞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창조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변증하고, 과학과 신앙의 건전한 대화를 모색해 교회를 돕자는 취지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해를 좀 많이 받는다. 심지어 나를 가리켜 기독교인이 아니라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내 의도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같이 교회를 떠난 기독교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는 이런 시각으로 나를 봐주었으면 좋겠다(웃음).

우종학 교수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며 학생 시절에는 IVF(기독교학생회), GSF(기독교대학원생회) 등의 선교단체에서 활동했고 미국 유학 중에는 코스타에서 리더와 간사로 섬겼다.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항공우주국으로부터 허블 펄소십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러 학술 논문은 물론, 기독교와 과학에 대한 글을 저술, 번역했다.

김진영 기자

2018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를 보듯,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일독**의 효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OC 지역(제 17차):
2018년 2월 10일(토) 9:00am-4:30pm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 714-591-7050
(214 N. Highland Ave., Fullerton, CA 92832)

밸리 지역(제 18차):
2018년 2월 17일(토) 9:00am-4:30pm
ANC 온누리교회(M800) / 818-834-7000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LA 지역(제 19차):
2018년 2월 24일(토) 9:00am-4:30pm
LA 비전교회 2층(본당) / 213-386-9191
(520 S. La Fayette Park Pl., LA, CA 90057)

접수: 8:30-9:00am
회비: \$10(점심, 다과)
교재: \$10

문의:
윤승철 집사(818-402-3391, jyun1097@yahoo.com)
김권수 목사(818-383-7926, dkkim523@gmail.com)

후원: CHTV 56.9, 크리스천 헤럴드, 국민일보
성지순례 전문 "투어 프리미어"



강사: 김권수 목사(ANC 온누리교회 성경교육 전문사역자)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중, 풀러선교대학원
ThM(선교신학 석사), 풀러선교대학원
MDiv(목회학 석사), 웨드민스터대학
연세대학원 전기공학과 중퇴(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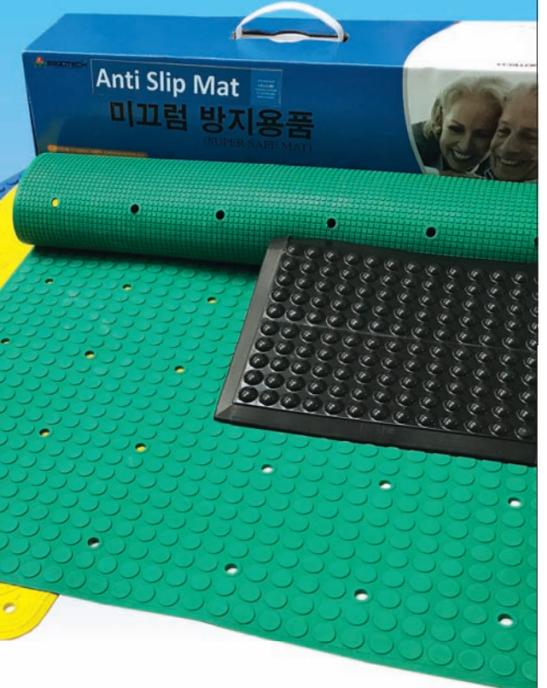


넘치는 복음으로 이웃에게
OVERFLOW: MORE GOSPEL IN OUR NEIGHBORHOODS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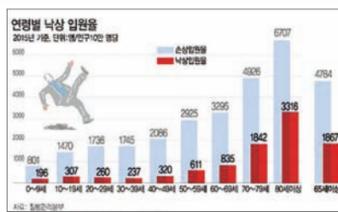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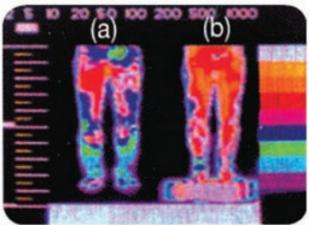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176 +tax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케어프코리아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케어프리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